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강 <금강경> 육조 해 서문 (1)

대개 서문은 책의 표적이다. 거기 지은이의 수준과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3회에 걸쳐 해능의 <금강경 구결>, 그 서문 전체를 소개해 주기로 한다. 해능은 이 짧은 글 안에 자신이 읽은 <금강경>의 근본 취지와, 이 책을 만나 소를 짓기까지의 인연을 압축적으로 담아 놓았다.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것은 불교의 필연적 선택이다. 만일, 짓기로 작정하면, 그때 불교는 도그마가 되고, 억압이 되어 유연성과 적응력을 잃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곳에 아예 의식하지 않다면 불교는 정재(淨財)를 쪼먹는 기식 집단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 두 해협 사이를 잘 지나가야 진정한 여법(如法)한 불교가 될 수 있다.

1. "무릇 <금강경>은 무상(無相)을 종(宗)으로 하고, 무주(無住)를 체(體)로 하며, 묘유(妙有)를 용(用)으로 한다." (夫金剛經者, 無相爲宗, 無住爲體, 妙有爲用)

2. "달마가 서쪽에서 건너와 이 경전의 뜻을 전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理)를 깨닫고 성(性)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自從達磨西來, 爲傳此經之意, 令人悟理見性)

-육조 해능의 불교가 여기 강령으로 선포된다. 무상과 무주는 <금강경>이 본문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 1부 서문(別記)에서 지리장황하게 살펴본 바이다.

3. "선종의 근본 취지도 <금강경>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성(自性)을 보지 못하기에, 견성(見性)의 법(法)을 세웠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진여본체(眞如本體)를 분명히 보았다면, 굳이 법(法)을 세울 필요가 없다." (祇爲世人不見自性, 是以立見性之法. 世人若了見眞如本體, 卽不假立法)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묘유의 용"은 금강경이 다루지 않는다. 다른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인데, 앞 장에서 내가 불교는 '반쪽'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선종의 근본 취지도 <금강경>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성(自性)을 보지 못하기에, 견성(見性)의 법(法)을 세웠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진여본체(眞如本體)를 분명히 보았다면, 굳이 법(法)을 세울 필요가 없다." (祇爲世人不見自性, 是以立見性之法. 世人若了見眞如本體, 卽不假立法)

이 부분은 길을 밟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불교는 이틀터면 터를 고르는 정치작업만 해 줄 뿐, 거기 무엇을 세우고 지을지에

3. "선종의 근본 취지도 <금강경>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성(自性)을 보지 못하기에, 견성(見性)의 법(法)을 세웠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진여본체(眞如本體)를 분명히 보았다면, 굳이 법(法)을 세울 필요가 없다." (祇爲世人不見自性, 是以立見性之法. 世人若了見眞如本體, 卽不假立法)

4. "이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은 무수하

고, 칭찬하는 사람도 가이없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800여명이나 된다. 말하는 도리(道理)는 각각의 본 바에 따르는데, 견해는 다르더라도 법(法)은 둘이 아니다. 오랫동안 익힌 상근(上根)은 한번 듣고 바로 이해하지만, 오래 묵은 지혜가 없으면 많이 독송해도 부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전을 해석하여 학자들의 의혹을 풀려고 한다. 만일 경전만 보고도 취지를 분명히 파악한 사람이라면 굳이 나의

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從上如來所說善法, 爲除凡夫不善之心)

-자성(自性)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거기 이르는 방법과 스타일은 달라도 이르고자 하는 곳은 같다... 그러나, 또한 서로 다르다. 다음에 보듯, 불선한 마음을 제거한 점에서는 서로 같겠지만, 그 마음을 쓰는 묘유(妙有)의 용(用)은 서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心. 此一卷經衆生性中本有. 不自見者, 但讀誦文字. 若悟本心, 始知此經不在文字)

-<금강경>의 취지는 <금강경>의 밖에 있다!

7. "다만 (자신의) 자성(自性)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그때 일체의 제불(諸佛)이 이 경(經)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지금 다만 우려되는 것은, 세인(世人)들이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고, 밖을 향해 경(經)을 구할 뿐, 내심(內心)을 발하지 않고, 내경

向外求經, 不發內心, 不持內經, 故造此訣, 令諸學者持內心經. 了然自見清淨佛心過於數量不可思議. 後之學者讀經有疑, 見此解義, 疑心釋然, 更不用說)

-<금강경>은 마음의 진실 하나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밖을 향해 찾지 말라. 자기 속에 있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으니... 그 진실이 마음 안에 '이미' 있다면, 정말, 경전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 한 군데 출교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이미 거기 있음을 알려주는 즉 지시(指示)에 있다. "말을 가리키면 말을 보아야지, 왜 손가락은 보고 있나?"

경전이 짙어지고자 하는 마음의 진실은 어디 공공 숨어있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한 순간에 알려진다. 여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돈오(頓悟)이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종의 액션을 취하게 된다. 성철 스님이 이 점에서 돈오돈수를 말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액션의 강도와 지속성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점수(漸修)라고 한다.

8. "바라건대는 학자들이 광석 가운데 금의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 지혜의 불로 녹이고 제련하여 광석은 버리고 금을 남기기를..." (所冀學者同見礦中金性, 以智慧火鎔煉, 礦去金存)

-<금강경>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 번뇌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번뇌방상의 잡색을 지혜의 용광로에 녹여 제거하면, 그 속에 있던 불성의 금이 나타난다. 그 황금빛 노다지로 다들 '부자 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성의 노다지로 '부자 되세요'



구구한 해설을 빌릴 필요가 없다." (此經讀誦者無數, 稱讚者無邊, 造疏及註解凡八百餘家, 所說道理各隨所見. 見雖不同法卽無二, 宿植上根者一聞便了, 若無宿慧, 讀誦雖多, 不悟佛意. 故解釋其義, 庶斷學者疑心. 若於此經, 得旨無疑, 卽不假解說)

-자상한 해석이 필요한 사람, <금강경>만 보고도 아는 사람, 그것조차 군더더기인 사람이 있다. 나는 <대승기신론>의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설에도 끌리는데, 그게 번다하다 하여 화두를 드는 사람도 있다. 화두조차 틀에 잡힌 격식이라 하여 전통을 깨고 아예 격외(格外)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지점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도 불교의 생명은 이들 격외의 실천들로 유지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불교사는 원래 새로 쓰는 것이지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5. "본시 여래가 선법(善法)을 설하는 것

6. "경(經)이란 성인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듣고, 범(凡)에서 성(聖)을 깨달아, 영원히 미혹(迷心)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한 권의 경(經)은 중생의 성(性)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다만 문자만 독송하게 될 것이다. 만일 본심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이 경(經)이 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經是聖人之語, 教人聞之, 從凡悟聖, 永息迷

內經)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설(說)을 지어 학자로 하여금 내심경(內心經)을 지니, (자성을) 스스로 분명히 보게 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불심이 헤일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나중에 학자가 이 경전을 읽다가 의문이 있으면, 이 해설심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이 경(經)이 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經是聖人之語, 教人聞之, 從凡悟聖, 永息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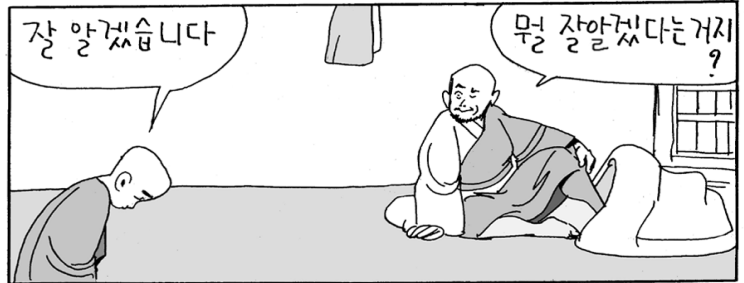
內經)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설(說)을 지어 학자로 하여금 내심경(內心經)을 지니, (자성을) 스스로 분명히 보게 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불심이 헤일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나중에 학자가 이 경전을 읽다가 의문이 있으면, 이 해설심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이 경(經)이 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經是聖人之語, 教人聞之, 從凡悟聖, 永息迷

주장사파라...

80 운암 선사 '천수천안'



조태호



운암 담성(雲巖曇晟, 782-841): 당대 스님. 청원(靑原)문하. 강서성 출신으로 백장화해에게 참학하고 약산유엄(藥山惟嚴)의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출세(出世)'가 불교용어 인가요?

리: 흔히들 "자네, 참으로 출세했네..." "그 사람은 이제 출세 가도에 들어섰어..." "사람은 출세하고 불이야..." "출세해서 남 주냐?" 하며 출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불교용어 맞나요?(취업대기생)

답 1: 일상에서 쓰이는 '출세'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직위가 높아졌음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숨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알려짐도 출세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의 출세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직결되어 있어서 세인(世人)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본디 출세란 불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말하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를 출세라고도 해요.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보살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많은 도움을 줄 때도 "보살이 이 세상에 출세했다"고 하지요. (출세만)

답 2: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하신 참뜻을 '출세본회(出世本懷)'라고 하는데, 출세본회란 말만 불교인으로서의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禪佛敎)를 전한 의미를 일컫는 서래본(西來本懷)이 있습니다. 부처님 출세본회나 달마 서래본이나 모두 불교의 진실한 뜻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을 꾸며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달마만)

답 3: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출세는 대부분 인심을 통한 부귀영화지요. 세속출세를 꿈꾸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머리를 돌려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출세를 종종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뤄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출세한다는 것은 출세본회나 서래본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출세의 경지를 추구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출세와 불교적인 의미의 출세가 동시에 이뤄지면 그때 비로소 행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쉬어가는 사람)

답 4: 만해 스님은 '출세(出世間)'를 강조했습니다. 세간에 있던 세간을 벗어났던 그 경계를 분명하고, 또는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 말씀이죠. 멋지지 않습니까?(만해스님)

부디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3.

상식퍼즐

1. 구기자나무의 열매 2.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3.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 비슷한 말은 제자 4.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5. 6조 해능, 8조 〇〇, 9조 지장 6. 압박이나 구름에 새긴 불상.

1. 신라 밀교 고려 초에 형성된 선종의 아홉 파(派)를 일컫는 말 7.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르는 말 8.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의 주도(州都) 9. 신문·방송 등에서의 보고기사 10.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 11.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하는 맨손체조 12. 가난한 지식인부부의 애환을 속물적인 인물과 대비하여 형상화한 현진건의 단편소설 13. 팔리 달리는 말 또는 '세찬 기세'를 이르는 말.